



구술자료 상세목록 (구술개요 포함)

사업명	<‘옛’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>					
사업개요	인천 미추홀구 학익동, 용현동 일대는 염전-공업지대-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. 이 중 1960-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, 인근 공장의 관계자, 지역주민, 소상공인,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.					
구술자명	손경임	성 별	여성		출생연도	1948년
면담자	표기자	소 속	미추홀시민기록단		감독자	
면담장소	학산문화원 동아리실		면담지원	홍난희		
면담 일시	2025 년 9 월 22일		회 차	1	시 간	1시간 20분
자료번호						
구술 개요	구술자는 학산문화원에서 학익, 용현동 주변의 오래된 사진을 수집하는 기획 행사에 사진을 제출하게 된 기회로 구술에 참여하시게 됨. 동양화학 초창기 교환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으로 구술을 해주셨는데 전화로 사전 면담 차 기본적인 정보를 듣고 본 면담은 1회를 하기로 한 사전 계획대로 진행하였다. 60년 대 중반 동양화학 소다회 공장이 준공도 되기전에 교환원 업무가 시작되었다. 동양화학은 사내선이 100회선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었다. 6명에서 3교대하면서 일했고 동양화학 주변의 풍광에 대해선 옥련동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순 없었다.					
주요 색인어						
구술 상세목록 내용				시간	관련 파일(비공개)	
1. 시작 멘트 : 일시 및 연구진 소개.				(00:00:05 ~ 00:00:36)		
- 인사						
2. 개인 생애와 성장 과정				00:00:37 ~ 00:13:00		
- 48년생 경북 김천이 고향. - 고향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어 이고 다니던 모습. -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퇴근할 때 까지 기다리시고 아버지는 퇴근길에 약주 드셨어도 조용히 집안으로 들어오셨음. - 구술자가 고 1학년 때, 서울로 유학 온 남동생 밥해주러 서울에 올라옴. - 서울 살 때 교환원 자격을 취득함						



3. 동양화학 교환원으로 취업하게 된 계기 - 친구의 소개로 동양화학 교환원으로 입사 함. - 옥련동에 자취방을 얻어 버스비가 아까워 도보로 출퇴근 함.	00:13:01 ~00:15:07	
4. 고등학교 과정을 만학하게 된 배경 - 고교 졸업을 못한 아쉬움이 커 72살에 성인학교인 남인천고등학교에서 고교과정을 졸업함. - 이력서에 고졸이라고 쓰게 되어 뿌듯했음.	00:15:08 ~00:20:24	
5. 동양화학 입사와 교환원으로서 근무 경험 - 68년 동양화학 준공식 전에 회사 정문 입구 쪽 다다미 방이 있는 건물에서 근무함. - 2조 3교대 근무. - 사내 전화선이 100회선이 넘음. -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급여가 6800원이었음. - 1공장은 소다회공장, 2공장은 피플란트 공장이라 불렀음.	00:20:25 ~00:40:01	
6. 남편과 동양화학 사내 커플이 되다 - 옥련동에서 자취할 때 남편을 만남.	00:40:02 ~00:43:02	
7. 동양화학 근무 이야기? - .정문 입구에 매점 있었고 동양식당 있었음. - 사무직 여직원은 20명 정도였음. - 성과급 100% 있었고 새인천폴장에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, 생일에 케이크 쿠폰 주면 지정업체 가서 받아옴.	00:43:03~ 00:47:44	
8. 이회림 회장님과의 추억 - 미금시에 있는 회장님 농장에 놀러가서 고기 구워먹고 함. - 급여를 타면 가정에 쌀 사고 연탄 사라는 회장님의 말씀을 늘 들었음.	00:47:45~ 00:51:33	
9. 교환원 퇴직과 소회 - 그 당시 교환원으로서 일한 점에 대해 자랑스럽고 좋았음.	00:51:34~ 00:53:01	
10. 사내 결혼과 가족의 삶 - 사내 커플 2호로 결혼하게 됨	00:53:02~ 00:56:24	
11.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 양상 - 옥련동에서 회사까지 걸어가는 길에 바닷가였는데 맛살이 쪽쪽 올라왔다 사라지는 풍경이 흥미로웠다. - 신혼 시절에 아이 업고 옥련동에서 용현시장을 걸어다님.	00:56:25~ 01:05:35	

- 회사의 환경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은 없고 연기 나던 것만 기억 함.			
12. 퇴직 이후의 삶			
- 퇴직, 결혼 후 전업 주부로 사는동안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은 못 느껴 동양화학에 다녔던 남편의 급여가 적지 않았다. - 남편은 68년도부터 96년도까지 근무함.		01:05:36~ 01:09:10	
13. 현재 활동과 삶의 의미			
- 인하대 평생학습관, 시민대학, 이야기할머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. - 현재 실버기자단으로 활동 중임. - 동양화학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대체되고 있는데 농산물 가꾸는 장소로 바뀌면 좋겠다는 소견이 있음. -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가기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. - 남편이 무일푼으로 고향에서 인천으로 옮겨 와서 아이들 대학 공부 시키고 일가를 그만쯤 일군 점은 동양화학에서 적지 않은 급여 덕택인 것 같다.		01:09:11~ 01:22:25	
14. 남편과 둘째딸이 동양화학에서 근무했던 이야기			
- 남편은 68년도에 PVC공장에서 일하다가 소다회공장, 공무부서 기계과로 옮기며 일하다 96년도에 퇴직. 이어서 동양화학사원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함. - 기계과로 옮기면서는 학원다니며 기술을 배움. - 송도고등학교에서 직원 체육대회 했던 기억. - 재직 시 떠올려지는 동료, 상사 이야기. - 둘째딸은 가족 찬스로 동양화학에 입사해 환경관리과에서 일한 경험 있음. -		01:22:26~ 01:52:22	
공개여부	☐ 전체 공개 ☐ 전체 비공개 ☐ 부분 공개		
활용동의	☐ 동의함 ☐ 동의 안 함 ☐ 조건부 동의		
특이사항	구술자와 전화로 사전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동양화학 근무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남편 면담도 문의했으나 몸이 불편하여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내인 구술자를 통해 간접 구술을 들었다.		